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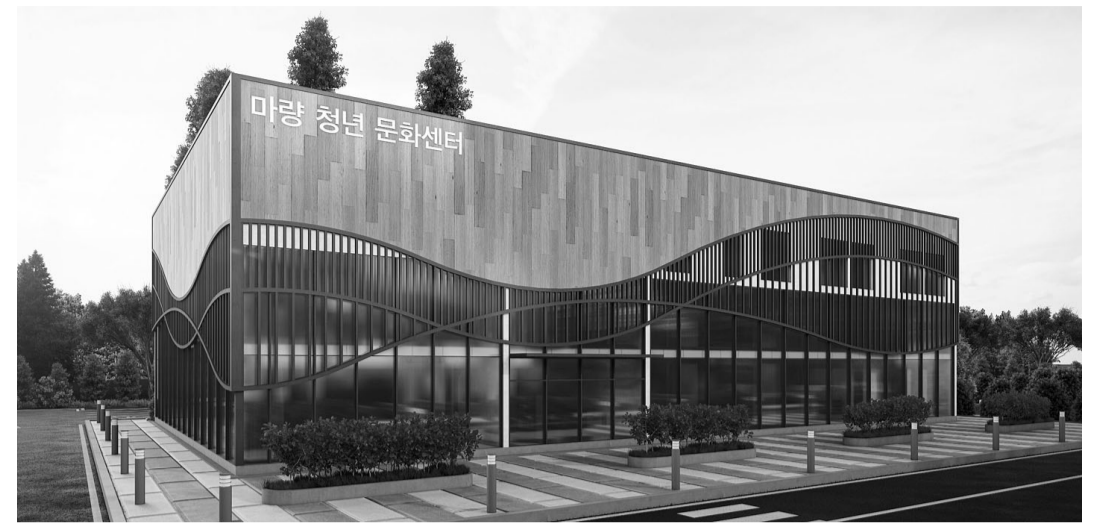
강진 노후 마량농공단지 100억 투입 '청년친화' 새 단장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 선정...근로자 정주 여건·근로 환경 개선 청춘카페 갖춘 문화센터 건립·조형물 설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

강진군이 노후 마량농공단지에 100억원을 투입해 '청년친화도시'로 새 단장한다. 강진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이번 공모사업은 1988년 준공해 운영중인 노후 농공단지인 마량농공단지에 국·도비 7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마량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개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이 있다. 강진군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 8월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설과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또 마량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 구상안은 1, 2층에 치유실, 청춘카페,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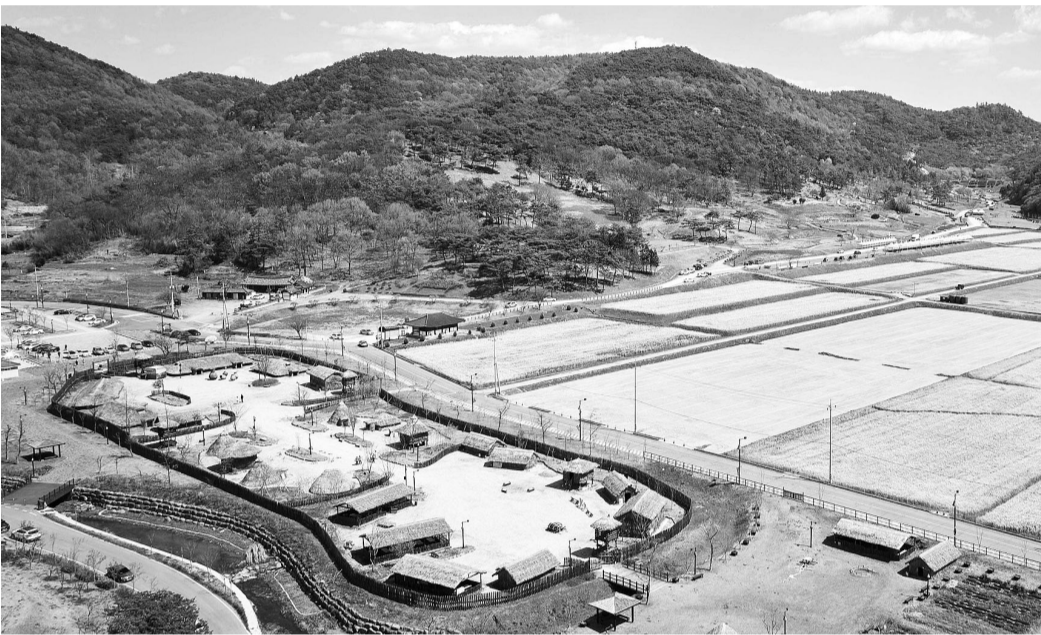
하고 3층에는 주거형 원룸 12실과 쉼터를 배치했다. 주거형 원룸을 신설해 원거리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강진군에서 진행중인 미 프로젝트와 연계해 농공단지 내 도로정비와 조형물 설치,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량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근로자와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마량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농공단지 재탄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마량농공단지에 조성될 '청년문화센터' 조감도.

봄꽃 만발 '화순 고인돌공원'으로 소풍 가세요~

봄꽃축제, 19~28일 개최 버스킹·DJ박스·예술 공연 등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 다채



유채꽃 평원이 펼쳐질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인근.

〈화순군 제공〉

'2024 화순고인돌봄꽃축제'가 19일부터 28일까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와 도곡면 효산리 일대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를 주제로 총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 5개 부대행사 등이 마련된다. 9.1ha 부지에 25만 그루 초화류로 구성된 봄꽃단지는 다채로운 조형물과 초화류, 유채꽃, 전시작품 등이 선보인다. 공연 분야는 실력과 뮤지션들의 야외공연이 펼쳐질 DM버스킹, 추억의 DJ박스, 화순 예술단체 공연, 가족 공연 등이 펼쳐진다. 전시 분야는 '봄의 향기 주제관'과 초대형 공인형 조형물, 고인돌 관련 조형물, 짙은 조형물, 몽환의 숲, 봄빛 정원, 농기구 전시 등으로 꾸며진다. 체험 부스는 고인돌 스탬프 투어, 4대 포인트 인종샷, 소원존(꿈메바위) 이벤트, 당나귀 꽃마차 체험, 키즈라라 체험부스 등 총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봄꽃축제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고인돌 축제뿐만 아니라 상시 공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2국가정원에 도전해 순천만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서울 청년 장흥 창업 팍팍 밀어드립니다

장흥군-서울시 협업 '넥스트 로컬'...교류망 조직·체류 공간 제공 등

장흥군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서울시와 창업 지원 협업을 한다. 장흥군과 서울시는 지역 연계형 창업지원 사업인 '넥스트 로컬' (Next Local)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넥스트 로컬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 사업이다. 서울지역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지역자원조사 활동비(1인 최대 100만원)와 사업화 과정(1개 팀 최대 2000만원), 후속 과정(1개 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행정과 민간 교류망을 조직하고 청년 예비 사업가를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에서 온 청년들에게 지역 창업 소재를 소개하고 지역알기 여행, 임시 체류,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한다.

장흥에 있는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한국한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등 연구소와 연계한 사업 구체화 과정도 돕는다. 성과가 우수한 창업가가 장흥군에 사업장을 열고 전입할 경우 서울시 후속 지원금 규모에 맞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서울 청년 창업가들이 장흥군의 특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농·수·축산물 판로를 넓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생산 시설의 지역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확대와 지역 활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지역 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업안을 도출해 낼 서울시 청년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도 활성화되고, 서울시 청년들도 장흥에서 희망과 꿈을 찾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임대료 0원' 나주 청년주택 70가구 공급

18~45세 26일까지 모집

나주시가 이른바 '0원 주택'에 입주할 청년 70가구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임대 주택'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된다. 다른 지역에서 나주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이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삼영동, 송월동 임대(부영)아파트 30호를 최초 공급했으며, 올해 70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은 나주시가 지원한다.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른 지역(사·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입주할 즉시 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나주시 지역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송월동 취업청년 임대주택. 〈나주시 제공〉

입주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제목)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사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오는 5월 중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월말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2조 9000억 규모 공간개발 전략 논의

정책자문위, 구체화 전략 논의 해양 생태·산악녹지·미래성장 공간구조 3개 축 나눠 개발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정기회의를 열어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미래 지역발전 위한 공간개발에 2조 8744억원을 투입한다. 함평군은 지난 2일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등 군정 주요 정책사업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공간개발 전략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날 류인섭 전 전남농업기술원장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임영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맡는다.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기업인, 지역 사회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문그룹(농림축산, 관광스포츠, 도시개발 분과)과 일반 그룹으로 나눠 전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함께 1조7100억원 규모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문위 회의에서는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에서 더 나아가 함평군 공간 구조를 3개 축(해양생태, 산악녹지, 미래성장)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한 '전통식품 가공 클러스터 구축'도 추가로 제안했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의 사업비는 2조8744억원에 달할 것으로 함평군 측은 내다봤다. 공간 구조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사업별 실무 자문

기능을 넘어 군정 주요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혜로운 고견이 필요하다"며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건설의 밑거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장성군이 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 있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일반모듈)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64%인 342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9가구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8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장성군 측은 내다봤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는 설비 내용과 면적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 태양열·지열·연료전지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태양광은 오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과 계약을 맺은 뒤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서류를 내

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뒤 자부담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최종 사업 승인이 난다. 이후 시공을 마치고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절차를 밟으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참여기업 목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민 법률 해결사 '향촌변호사'

매주 월요일 무료 상담 호평

담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향촌변호사' 제도를 지역민들의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향촌변호사는 전담 변호사(김혜인)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향촌변호사를 운영해 총 11회 상담을 받았다. 그동안 담양에는 법률사무소가 부족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또는 지소가 없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 지원제도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터 등이 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왔다. 담양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촌변호사를 위

촉, 대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향촌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하고, 법률분쟁 예방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담양군민이라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모든 분야에서 일대일 대면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향촌변호사는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3건만 상담을 진행한다. 향촌변호사는 "지난 4개월 동안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 최선을 다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